

## “경찰, 삼성 지시·요청 따라 조직 범죄 저질러”

### 염호석 열사 시신탈취, 삼성 매수 경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 “정당한 공무집행하고 삼성에게 살피 받았을 뿐”

허위공문서 작성·실행 시신탈취 화장 이송 삼성 뇌물 수수....

조직폭력배들이 이권을 위해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삼성그룹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저지른 조직적인 범죄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삼성 매수 경찰 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염호석 열사·조합원 명예회복과 삼성 유착·매수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박다혜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신분회장의 시신을 탈취한 경찰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공권력으로 존중해야 할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조사 결과를 인용해 경찰의 범죄사실을 설명했다.

### 열거조차 힘든 경찰의 범죄사실

진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삼성 지시·요청에 따라 국민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시사 정보 수시 보고 ▲열사 유서 확보 후, 사실 숨긴 채 가족장 주선해 유족 속임 ▲브로커 섭외, 112 허위신고 사주 ▲삼성 대신하고, 적극 도와 합의 중용, 심지어 합의금 직접 전달 ▲삼성이 원하는 방식 장례 위해 휴무 중인 경찰 동원 유족 장례방해, 열사 동료 조합원들 폭행·불법체포 ▲허위공문서 작성·실행 시신탈취, 화장 이송까지 구체적 관여 ▲삼성 지시·요청 모든 작



전이 끝나고 은밀한 곳에서 현금 1천만 원 받고, 작전 실행 경찰들 양복 맞춰 입고, 고깃집 회식, 남은 돈은 나눠 갖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박다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진조위가 간신히 밝혀낸 범죄가 이 정도다. 경찰은 삼성의 사명으로서 기능했다. 삼성 소속 인사부서, 경비 부서와 함께 직접 고용된 사람처럼 일했다”라고 지적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진조위 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의 범죄 행위는 일부 경찰의 일탈 행위가 아니다. 본청, 지방청, 경찰서 등 각 단위가 구체적인 지시하고 보고하고 업무분담을 하면서 벌인 조직적인 합심 범죄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뇌물을 받은 경찰 한 명을 구속했다. 이 경찰은 첫 번째 공판에서 판사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느라고 문자 무죄를 주장했다.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삼성으로부터 살피를 받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진

숯했다”라고 전했다.

“나는 무죄. 정당한 공무집행하고 삼성에게 살피 받았을 뿐”

박다혜 변호사는 “이들 경찰에게 삼성은 국가이고, 삼성의 인위를 위한 행위는 경찰의 정당한 업무영역이었다. 이들에게 삼성의 뇌물은 삼성의 일을 한 후에 받은 돈이기에 부끄럼 없는 당연한 돈이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한 경찰의 직업 윤리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유족과 노동조합에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찰은 사과 한마디 없다. 과거 정권 경찰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며 “언제까지 가진 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집단으로 존재할지 참담하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경찰 스스로 거듭나기를 간곡하게 바란다. 염호석 열사 시신탈취와 삼성그룹을 위한 기혹한 노조탄압에 나선 삼성하수인 경찰을 스스로 처벌해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장례방해 형사 처벌 지회 조합원 연대단체 등 염호석 열사 동료들에게 사과, 명예회복 조치 ▲진조위 조사 지적 위법 월권행위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관련자 (퇴직자 포함) 징계, 파면 조치 ▲지난 10년 경찰청 정보국 노정경찰 노사 교섭 개입 사례의 경과, 요건, 적절성 등 전수 조사, 공개 결과에 따라 정보국 노정팀 폐지, 교섭 중재 기능 고용노동부 이관 등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 노조 긴급 투쟁시침, 교섭 중단 전체 지부 지회 울산 결집

27일, 현중지부 주총장 점거 돌입 ... 30일, 영남권 13시, 이외 지부 15시까지 노숙 준비 집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여는 현대중공업 한미음회관을 점거하자, 금속노조와 울산의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5월 2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긴급 투쟁지침을 결정했다. 노조는 5월 28일부터 비상투쟁에 돌입한다. 각 지부와 지회는 교섭을 중단하고, 전체 확대간부와 조합원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 현대중공업 주총지지 투쟁에 총력 결집한다. 영남권 지부는 30일 13시, 이외 지부는 15시까지 노숙 준비를 해서 결집한다.

농성장에 대한 경찰력 침탈, 경비와 용역 침탈 등 정부와 사측의 도발 시 인근 지부는 비상 결집하고, 위원장이 비상 중집을 소집해 금속노조 총파업방침을 논의한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물적 분할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29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지역본부, 지사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더불어 비상운영위 등을 소집해 현중지부 투쟁상황을 공유하고 투쟁을 조직한다.

노조 울산지역 조합원은 현대중공업지부의 농성 투쟁을 업호하기 위해 29일 17시까지 농성장으로 집결해 지역본부 결의대회와 19시 촛불문화제에 참가한다.

민주노총은 5월 30일 17시 한미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박 2일 투쟁에 돌입한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5월 27일 울산 동구 전하동 한미음회관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500여 명이 회관에 진입한 후 문을 걸어 잠그고, 현대중공

업 물적 분할을 논의할 주주총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현대중공업지부는 정몽준-정기선 재벌 3세 경영 승계를 위한 물적 분할을 막기 위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부는 임시주총장을 점거하고 결사 항전의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지주사 체제 완성은 다른 재벌들이 같은 형태로 후계 구도를 완성할 때 쓰는 수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며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새로운 노동조합 파괴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정몽준 일가가 추진하는 현대중공업 분할을 막는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동지들이 5월 30일과 31일 전개하는 1박 2일 투쟁에 연대를 해달라. 긴급히 호소한다”라고 요청했다.

## “국민연금, 국민 편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반대하라”

29일 민주노총·금속노조 전국에서 기자회견 ... “현중과 대우조선 합병, 조선산업 뿌리 값아 먹는 잘못된 만남”

금속노조가 국민연금공단에 연기금의 공공성을 고려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주 등 전국에서 ‘현대중공업 2대 주주 국민연금공단의 임시주주총회 물적 분할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서울지

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5월 29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본부 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정몽준 재벌 일가 3세 승계를 위한 회사 자산 빼돌리기로 규정하고, 울산 경제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공연기금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

다.

박경선 금속노조 서울지부장은 29일 서울지역 기자회견 “울산에서 1987년 폴리아트크레인 투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알짜 자산은 정몽준이 지배하는 한국조선해양에 넘기고, 부채는 사회사로 전락한 현중에 몰아넣는 비정상적인 물적 분할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규탄했다.